

하나오카 사건과 5·18항쟁...미술·문학서 조명

CULTURE

2025년 5월 13일 화요일

광주시립미술관 등 국제 학술심포지엄 18일 하정웅미술관
‘마쓰다 도키코’ 연구자 주로쿠 회장 등 양국 전문가들 참여
기조강연 등...19일 국립5·18민주묘지서 문병란 시인 참배

일본 하나오카 사건과 광주 5·18항쟁 등 한·일의 역사적 사건을 미술과 문학으로 연결해 재조명하는 학술행사가 마련된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윤익)은 일본 역사교육자 협의회, 광주전남작가회의, 문병란시인기념사업회 등과 공동으로 5·18민주항쟁 45주년을 맞아 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기획한 2025 국제 학술심포지엄 ‘마쓰다 도키코(松田道子)의 문학과 생애’를 오는 18일 오후 2시 하정웅미술관에서 진행한다.

광주시립미술관이 소장한 하정웅컬렉션 ‘하나오카 이야기’와 연계돼 이뤄질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일본 역사교육자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5·18기념재단과 한일민족문제학회, 역사교사모임

이 협력해 다양한 단체와 인사들이 망라돼 하나오카 사건 진상과 조선인 강제징용의 규명에 문학작품을 통해 온힘을 쏟았던 마쓰다 도키코(1905~2004)의 삶과 문학정신을 기리는 동시에 문병란 시인(1935~2015)의 삶과 문학정신도 공유에 나선다.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다카하시 히데하루(高橋秀晴) 부총장(아키타현립대)의 ‘마쓰다 도키코의 문학과 저항의 생애’에 대한 기조강연에 이어 에자키 준(江崎淳) 대표(마쓰다 도키코회)가 ‘나나쓰다테 사건과 하나오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다. 또 하나오카 사건을 마쓰다 도키코에 처음 소개했던 차타니 주로쿠(茶谷十六) 회장(아키타현 역사교육자협의회)이 한국으로 확장되는 ‘마쓰다 도키코의 문학과 생애’에 대해 발표한다. 김정훈 교수(전남과



마쓰다 도키코 작가



문병란 시인

학대)는 ‘문병란과 마쓰다 도키코의 저항정신’을 비교 분석하며 ‘한·일 양국 문학인의 저항정신’을 되짚을 예정이다. 차타니 주로쿠 회장은 12일 열린 설명회 자리에서 직접 ‘아리랑’을 우리말로 불러 주목을 받았고, 자신이 하나오카 사건 등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온 흔적들인 도서들을 일본에서 공수해와 소개하기도 했다.

다카하시 히데하루 부총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해방 후엔 하나오카 사건과 마쓰카와 사건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실천 활동을 전개한 부분, 대표작 ‘땅밭의 사람들’, ‘오리 구전’을 집필한 배경, 그리

고 작품의 의의에 대해 논하고, 마쓰다 도키코 인생과 문학이 약자 편에 있었으며, 학대받은 사람들의 부당한 차별, 편견에 맞선 점을 강조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방침이다.

마쓰다 도키코는 1905년 일본 아키타현에서 태어나 평생을 인권 운동에 헌신한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광산사무소에서 근무하며 광산 노동자의 가혹한 노동현실에 접하면서 사회의식에 눈을 떴다. 1928년 ‘독서신문’에 ‘출산’이라는 단편으로 입선했으며 같은 해 일본 프롤레타리아 작가동맹에도 가입한다. 아울러 제2차 세계대전 시기 하나오카 사건과 그 사건의 발단이 된 나나쓰다테 사건의 한국인 노동자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건의 진상규명에 매진했으며 권력이 노동자를 탄압하는 현실을 고발한다. 마쓰다 도키코는 제국주의 시대 조선인에 대한 차별 대우와 강제징용, 조선·중국인 학살사건 등을 세상에 알린다.

특히 이번 학술심포지엄을 기념해 17일과 18일 양일 동안 광주시립미술관이 소장한 하정웅컬렉션 ‘하나오카 이야기’ 연작이 선보인다. ‘하나오카 이야기’ 연작 작품은 니 히로하루, 다카다이라 지로,

마키 다이스케가 1951년에 제작한 목판화로, 일본 제국이 강제 연행한 조선인과 중국인 강제 징용과 희생의 역사를 기록한 작품으로 2001년 하정웅 명예관장이 기증했다.

하나오카 사건은 1944년 조선인 11명이 희생된 데 이어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5년 6월, 일본제국에 의해 강제 연행된 조선인과 중국인 노동자 수백 명이 극심한 학대와 고종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봉기했으나, 일본 군경에 의해 419명이 집단 학살된 비극적인 사건이다. 특히 조선인 11명과 일본인 11명이 생매장된 나나쓰다테 사건은 이후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작가 마쓰다 도키코는 ‘땅밭의 사람들’을 집필했다.

한편 일본 일행은 심포지엄이 끝난 뒤 19일 5·18 민주묘지를 방문하고 하나오카 사건을 담은 마쓰다 도키코의 ‘하나오카 사건 회고문’ (소명출판 刊)의 서문을 집필해 사건 규명에 힘을 보탠 당사자인 문병란 시인의 묘소를 찾아 그의 묘비 앞에서 존경의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문 시인의 저항정신을 기리면서 그의 극락왕생에 대해 기원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재즈부터 뮤지컬까지 ‘목요콘서트’ 다채

광주문화재단, 15~29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웅)은 올해 첫 ‘목요콘서트’를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진행한다.

‘목요콘서트’는 매주 목요일에 열리는 공연으로, 우리 지역의 역량 있는 전문 예술 공연단체들이 무대를 꾸민다.

1회차(15일) 공연은 펠리체앙상블의 ‘시 문학과, 노래가 되다’로, 박용철·이수복·김윤식·김현규 등 호남을 대표하는 시 문학과 시인들의 작품을 재해석해 문학과 음악이 어우러진 깊은 울림을 관객에게 선사한다.

펠리체 앙상블은 이탈리아어로 ‘행복’을 뜻하는 ‘Felice’에서 따온 의미로, 2017년 창단 이후 역사 속 인물을 음악으로 조망하는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며 공연문화 활성화에 힘써왔다. 출연진은 소프라노 김명선·조안나, 메조소프라노 김유정, 테너 박영권, 바리톤 황진원, 피아노 이승규다.

2회차(22일) 공연은 랑데부의 ‘Rendez-vous with Jazz?’ 시간 속의 음악 여행’으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감각적인 재즈 무대다.

랑데부는 재즈를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을 시도해 온 단체로, 전통적인 재즈와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곡을 선보이며 감동을 전하고 있다.

이번 무대는 보컬 강은영, 드럼 황의석, 색소폰 최의복, 베이스 임방울, 피아노 김태형,



목요콘서트 1회차 무대를 선보일 펠리체앙상블.

해설 허영일이 함께한다.

3회차(29일) 공연은 ‘러브어스앙상블’의 ‘소통과 감동이 있는 클래식 음악 산책’으로, 고전 클래식부터 영화·뮤지컬 OST, 전자음악, 민요에 이르기까지 여러 장르가 어우러진 스토리텔링 음악회다. 관객과의 소통을 통해 위로와 즐거움을 전하는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러브어스앙상블은 예술로 소통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창단된 단체로,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무대를 통해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출연진은 플루트 백현정, 바이올린 김관후, 첼로 이소연, 피아노 최은영·설효선·정경희, 소프라노 김영실, 바리톤 김용원, 해설 이지향이다.

자세한 공연 관련 정보는 광주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장료는 5000원. 문의 062-670-7942. 김다경 기자 alsqsl94@

예술로 되새기는 ‘오월 민중의 함성’

광주민예총 ‘광주민중예술제’ 개막...한 달간 민주광장·전일빌딩 245 등서

5월을 맞아 광주 지역 곳곳이 생동감 넘치는 예술 현장으로 변모한다.

(사) 광주민중예술인단체총연합(광주민예총, 이사장 정찬일)은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기념해 ‘2025 광주민중예술제’를 5·18민주광장과 5·18민주묘지, 전남대 정문 1호 사적지, 전일빌딩 245 등에서 펼친다.

이번 행사는 80년 5월 민중의 함성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아픈 역사를 현재의 감동으로 이어 미래 세대에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1일 2025 오월미술제 제37회 오월전 ‘생물 민주주의’ 전시와 2일 ‘제6회 예술만장전-빛의 혁명’, 3일 광주전남작가회의 ‘5·18 결개 시화전’을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한달여간 광주민족미술인협회, 놀이매 신명, 푸른솔합창단, 풍물위원회, 내뽕소리민족예술단, 연희단 아리, 한사랑예술단, 극단 토박이 등 10여개의 회원 단체가 참여해 공연과 전시,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14일은 광주민족미술인협회의 ‘A4 action 싹트는 봄’과 푸른솔합창단의 ‘오월 상설공연’, 16일은 광주민족미술인협회의 ‘5·18 45주년 기념 포럼 및 작가토크’가 열린다.

17일에는 놀이매 신명의 ‘언젠가 봄날에’, 극단 토박이의 ‘오! 금남식당’, 내뽕소리민족예술단과 한사랑예술단의 ‘해원곡’, 연희단 아리의 ‘오월가

락(사랑)’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진다. 또 23~24일 민들레소극장에서 극단 토박이의 오월연극 ‘광천동 청년 용준씨’를 만날 수 있다.

정찬일 이사장은 “‘2025 광주민중예술제’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기억하고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나아가 2030년 5·18 민주항쟁 50주년을 국제적인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5·18정신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의미 있는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민예총은 민족예술의 창작과 보급, 교육, 정책 개발을 통해 민족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 민주화와 민족통일, 지역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문화예술 단체로, 예술 장르 간 연대와 민중의 주체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폭넓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김다경 기자 alsqsl94@



(사) 광주민중예술인단체총연합은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기념해 ‘2025 광주민중예술제’를 5·18민주광장 등에서 펼친다. 사진은 지난 행사 모습.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